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및 향후 과제

강 경 훈
(동국대 경영)



金融의 기능

- ◆ 금융은 원래 아이디어·사업기회·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 이러한 자원배분을 위해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지급결제(Payments), 정보 생산(Information Production) 등은 금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경제 주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 ◆ 만일 금융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곧 기회의 규모가 됨
 - 반면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경우 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능력이 있으면 사업이나 교육기회를 받을 수가 있으며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후생 증대로 연결
- ◆ 현재 한국 금융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포용 금융은 소외된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복지 정책이 아니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유능한 주체들을 배제하던 '구조적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
 -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용 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같은 맥락

한국 금융의 약탈적 요소와 포용 금융

- ◆ 한국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들은 주로 우량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위주의 영업을 전개하며 극도로 리스크를 회피
 -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을 소리 없이 약탈하는 구조로 연결
 - 과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착취 구조'는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을 소리 없이 약탈하는 구조
 - 시중의 자금이 생산적인 혁신 투자나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결국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기존 자산 보유자에게만 이익
 - 우량 담보와 고신용을 갖춘 기득권층에게만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이 집중되며, 은행의 문턱을 못 넘는 혁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성장의 기회를 잃고 고금리 대출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림
- ◆ 안전제일주의는 은행이나 금융지주 경영진의 '참호 구축'과 연결
 - 견고한 참호를 파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최고경영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은 대규모 손실 발생인데 혁신기업 금융이나 담보 없는 서민금융은 경제성장이나 사회후생 차원에서 과실이 크지만, 실패할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할 우려
- ◆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통해 서민층 및 중소벤처기업을 한국 금융의 약탈적 요소로부터 보호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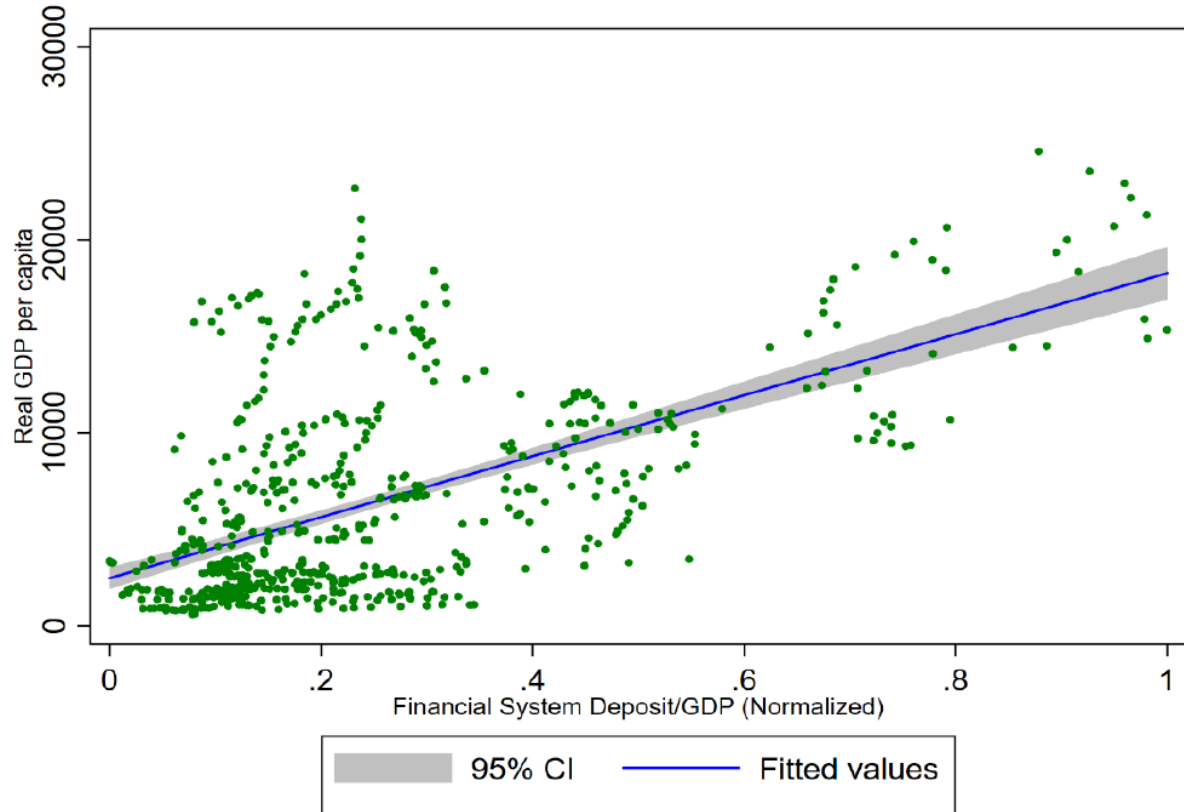
포용 금융과 경제성장

◆ 포용 금융은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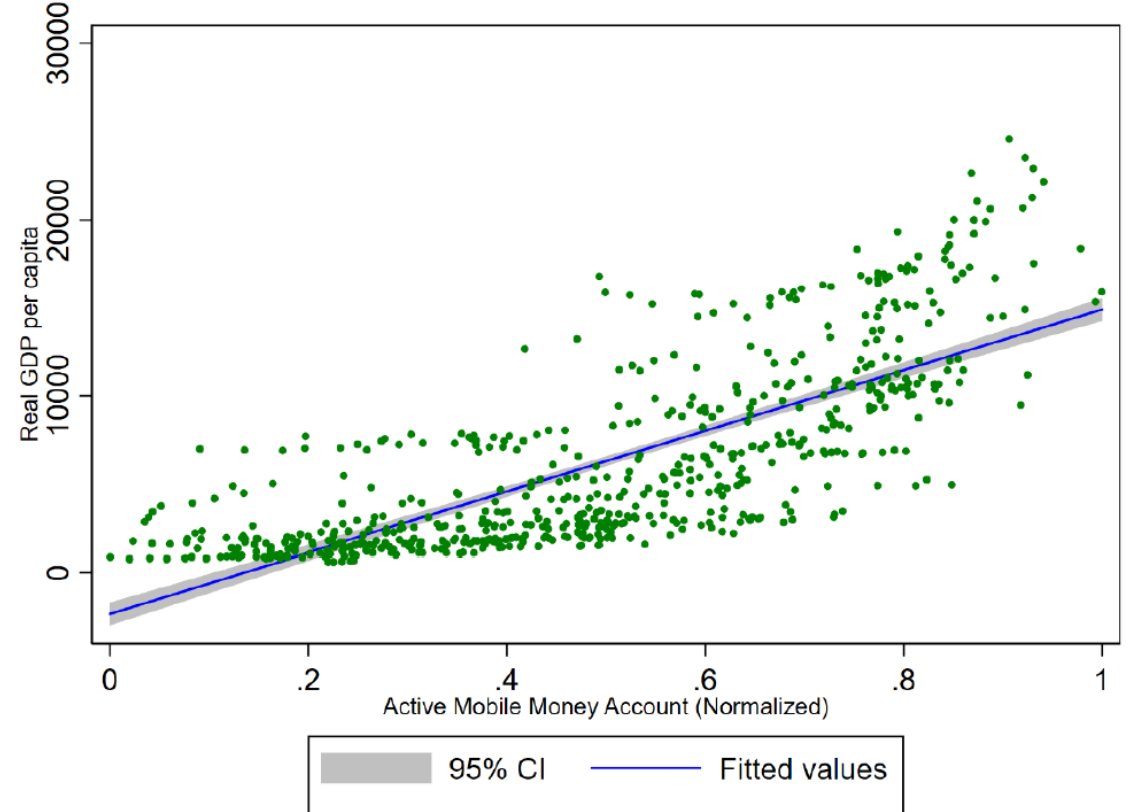
- 인적 자본 축적과 기회의 평등: 금융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가계가 신용 제약에 직면하면, 재능 있는 개인이 교육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인적 자본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견인
- 기업가 정신 발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금융기본권은 당장 담보로 내세울 자산은 부족하더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의 문턱을 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해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제고
- 위험 분산과 소비의 평활화: 가계가 질병이나 재해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금융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극단적인 예비적 저축을 줄이고, 그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 구축

포용 금융과 경제성장 간 관계

< 금융포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



< 모바일 포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



(자료 : Brun & Silue, 2021)

실증분석: 포용금융과 경제성장

◆ 다수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포용금융과 경제성장 간 양(+)의 관계

- The effect of financial inclusion on economic growth: the role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2024)
- Financial Inclusion and Economic Growth: Comparative Panel Evidence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Asian Countries (2024)
- The impact of financial inclusion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2023)
- Interplay of financial inclusion and economic growth in emerging economies (2025)
- Financial Inclusion and Economic Growth_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2021)
-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Inclusion in Developing Countries (2025)
- Financial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y (2023)
- Revisiting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inclusion and economic growth_a global analysis using panel threshold regression (2024)
- The nexus between financial inclusion and economic development_Comparison of old and new EU member countries (2021)
- New insights into the impact of financial inclusion on economic growth_A global perspective (2022)

진짜성장전략 구조도



기술주도 성장과 포용 금융

- ◆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 환경에서 포용 금융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
 - 혁신 동력의 저변 확대 (Widening the Innovation Base): 기술 경쟁이 소수의 거대 자본에 집중되면 시장이 경직될 수 있는데, 포용 금융은 자산은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풀뿌리 혁신가'들에게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혁신의 주체를 다각화
 - 위험 감수(Risk-taking)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치열한 기술 경쟁은 필연적으로 높은 실패 확률을 수반하는데, 기초적인 금융 안전망과 회복 탄력성을 보장하는 포용 금융은 혁신 주체들이 실패에 대한 공포 없이 과감한 기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줌.
 - '혁신의 역설' 방지: 기술 혁신이 빨라질수록 기술 수용도가 낮은 계층은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는데, 포용 금융은 표준화된 인프라나 보편적 디지털 금융 교육을 통해 기술 격차를 사회적 격차로 전이시키지 않는 방어선 역할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제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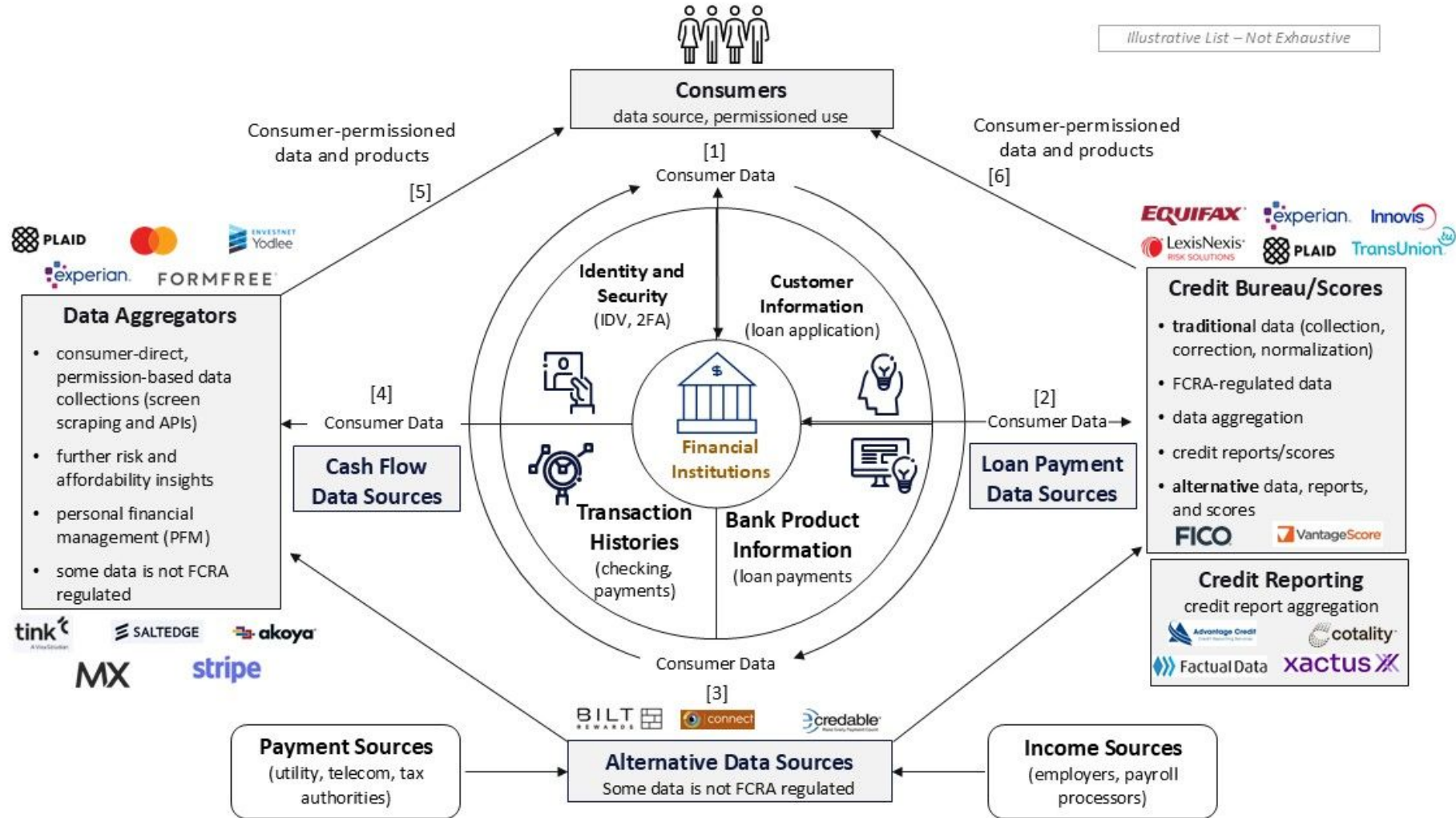
$$\text{경제성장이론: } Y = \tilde{A} \times f(L, K, D)$$

A=g(기술혁신, 경제·사회제도, 금융발전 등), 새로운 투입요소인 Data(Jones & Tonetti, Veldkamp 등)

- ◆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등 사회제도적 뒷받침도 중요
 - 기술개발을 주도할 인적자원 공급을 위해 정부-기업-교육기관의 전략적 투자 필요
 - AI 등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대규모 실업 가능성 등은 기술혁신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키며 경제활동 축소 등 악영향
 - 고용 양극화 및 이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교육기회 축소와 인적자본 저하로 연결돼 성장동력 훼손
- 기술혁신은 사회역량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불균형과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제도·문화·시민역량을 통해 기술혁신을 흡수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함 (Rand, 2026)
 - 포용 금융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장치이자 혁신의 인프라의 중요한 요소
- 한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의 생산요소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 주권이 잘 확립되는 경우 경제성장을 촉진
 - 데이터 주권의 확립도 포용 금융의 중요한 요소

데이터 주권의 적용 사례

미국의 현금 흐름 언더라이팅(Cash Flow Underwriting)



금융기본권의 정립 및 확산

- ◆ 포용 금융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초로서 금융기본권을 정립,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기본권은 새롭게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미 헌법에 내재되어 있던 기본권을 사회변화에 맞춰 구체화·설정화하는 것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2026.4.27), 전학선 교수)
- ◆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체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할 필요
 - 누구나 현대 경제생활의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가계가 해체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이와 같은 권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출, 상담, 보험, 저축, 채무조정 등에서 기초금융 프로그램을 도입
 - 금융기본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권리체계와 관련 기초금융 프로그램 등을 규율하는 법제 마련 방안을 검토